

시 조 동 해 는 눈 부 시 다

동 해 는 눈 부 시 다

동해의 금과도
준목참고과
금강산 단풍상이 달랠왔는가
명사실리 은모래에
바둑문고지
만이천봉우리도 내려졌는가

과도모양, 조카비모양 깃털 새
집들과
초고층건물들도 조화롭게 앉으면
명사의 단풍상이 올라 겹쳐요
하하하...

보란듯이 엮은 첫 총막우에
붉은기를 휘날리던 그 격정치는
침범- 뒤어두고는 바다를 걸에
두고도
이슬한 허공에서 침공을 역으며
쏟아지는 팜으로 미역을 감으며
불터위와 싸워 이긴 승피자의
자욱자욱

희열속에 맞이하던 진실장의 아픔
이어
총과 총을 날아넘으며
세월을 뛰어넘었노라
단숨에 추겨쳐올린 기적의 창조물은
사대의 지인으로 지라는
피끓는 청춘 우리의 모습

장판
저녁이면
별무리도 시샘할 불야경속에
희열이 젖어 행복에 취해
꿈 속인 듯 걸고걸을 밝은
모습들
심리와 케일의 명사실리는
기쁨 가득 밀물치오는 행복의
인파실리

의 이야기에
뜨거운 무락 담기는 편지마다에
습취며 들끓으며 먼저 찾는 해방
풍원도시
바다에 파도가 갖는 날은 있어도

이 기수에
저세한 지권의 파도 몇은 날은 없
거니
은 나라가 이백을 나란히 한
전투원
아, 동해전역은 전쟁 어디까지가...

일찍이며 뒤늦게는 걱정의 파도는
동해에 내가 아니라
내 가슴에 솟는구나
아직은 전설같은건만
그것만으로도 황홀한 자태
신기루마냥 일어서는 기적의 숲
아, 판광지구전설의 눈부신 모습!

천년을 단념을 출렁이는 바다에
물위에 오시고
불꽃속에 오시고
마가들의 전바람 맞으며 또 오시던
진주보다 소중한 그 자욱자욱
꿈으로
달려 달려와 이 기수를 잡는가

스쳐지던 벽제의 작은 실금도
후세에 남게 될 광성의 흥집같이
스스로 비상구경 내리던 그감이여
알았기로 올리는 불꽃이 생차지 않아
지고 오온 끝제를 총막우에 붙을
때면
조국이 미련 짐을 떨어내면간 같이

한계만 또 한계만
오르고 또 오르는 총계집은
완공의 그날에로 행여가나니
아, 원구를 감도는 만장에 서서
가슴부풀게 올리는 불꽃이 생차지 않아
내내전 생각지누나 이기가 바로
조국앞에 몇몇한 위훈의 단상이
라고

천이광년이란 동해의 불길은
태양화 고운 이 기수에
수수천년 안겨들며 일맞으며
고과 모래불실리를 펼쳤어도
어허와 한해만에 로동당시대는
은 세상이 달려올 별천지를
펼쳐가나

영웅청년신화를 노래하는 사이에
눈부신 려명신화 태어나더니
오늘은 더 놀라운 새 신화가
동해안을 들쭉이누나

철마로
봉의 의사를 끌어내치더니
어기선 동해전역의 거세한 창파로
제제의 장벽 통째로 쳐갈기며
원투를 정수리에 명공포와 들쭉이누나

정녕 어느 기수이더냐
이 장관 안아오시며
쏟아지는 폭양에 우리 원수님
맘으로 웃지라 희락하니 적시시며
불처럼 화차 나는 뱀사장을
마음용구려이 걸으시던 그날의
자욱이여

만복의 무지개를 꿈같이 떠올리며
은 한해 현신의 날과 달 달려오신
어머이
심혈의 그 무수한 낮과 밤
백사장의 은모래
알았이 세이던 다 헤아리랴
동해의 맑은 물
방울방울을 헤이던 다 알랴

명사실리 인파실리
합 영 주
아침이면
바다바람 싱그러운 로대 우
에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해 뜰이
이

이 전역은 어디까지가
류 명 호
작공의 첫삽 박은 날부터
이런 기쁜 일 즐거운 때
얼마나 많았나

희한한 레일이 자꾸자꾸 달려오는
기수
심리와 우리의 명사실리는
봉명의 상상봉에로 끌렸이 행어
가는
사랑의 전리일세 온정의 만리
일세

모래불만 아득하던 명사실리
그 심리가 비좁도록
불꽃불꽃 솟아난 기적의 용자들
어제는 한해에 코당전 10년세월을
오늘은 단 몇달에 잡아당겼다

정녕 이 땅의 신화는 무엇이더냐
인민위해 간직하신 원수님의 피상
그것이 곧
세상에 없는 조선의 신화
원수님만 따르는 친민의 격류
그것이 곧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의 신화

혼합기초로 우렁찬 건설의 격전장
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벌써 들으시는가
인민의 기쁨 동해처럼 물결치는
행복의 인파실리 그리시는가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이 그 영상

아, 동해명승 명사실리는
은모래 심리에 펼쳐져 눈부시던가
해돋이결정으로 눈부시던가
가없는 인민사회의 바다우에
참관히 빛나는 태양
우리 원수님 그 품에 솟아
문명의 새 절정은 아름답구나
우리네 동해는 눈부시구나

명사실리 인파실리
합 영 주
아침이면
바다바람 싱그러운 로대 우
에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해 뜰이
이

이 전역은 어디까지가
류 명 호
작공의 첫삽 박은 날부터
이런 기쁜 일 즐거운 때
얼마나 많았나

희한한 레일이 자꾸자꾸 달려오는
기수
심리와 우리의 명사실리는
봉명의 상상봉에로 끌렸이 행어
가는
사랑의 전리일세 온정의 만리
일세

모래불만 아득하던 명사실리
그 심리가 비좁도록
불꽃불꽃 솟아난 기적의 용자들
어제는 한해에 코당전 10년세월을
오늘은 단 몇달에 잡아당겼다

정녕 이 땅의 신화는 무엇이더냐
인민위해 간직하신 원수님의 피상
그것이 곧
세상에 없는 조선의 신화
원수님만 따르는 친민의 격류
그것이 곧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의 신화

흰구름 감도는 만장에 올라

발밑에 흰구름 감도는 만장에 올라
내 마음 다시 걸어보노라
정월부터 등지실때까지
은 한해 오드래면
같이같이 추억의 총계집을

아, 동해명승 명사실리는
은모래 심리에 펼쳐져 눈부시던가
해돋이결정으로 눈부시던가
가없는 인민사회의 바다우에
참관히 빛나는 태양
우리 원수님 그 품에 솟아
문명의 새 절정은 아름답구나
우리네 동해는 눈부시구나

명사실리 인파실리
합 영 주
아침이면
바다바람 싱그러운 로대 우
에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해 뜰이
이

이 전역은 어디까지가
류 명 호
작공의 첫삽 박은 날부터
이런 기쁜 일 즐거운 때
얼마나 많았나

희한한 레일이 자꾸자꾸 달려오는
기수
심리와 우리의 명사실리는
봉명의 상상봉에로 끌렸이 행어
가는
사랑의 전리일세 온정의 만리
일세

모래불만 아득하던 명사실리
그 심리가 비좁도록
불꽃불꽃 솟아난 기적의 용자들
어제는 한해에 코당전 10년세월을
오늘은 단 몇달에 잡아당겼다

정녕 이 땅의 신화는 무엇이더냐
인민위해 간직하신 원수님의 피상
그것이 곧
세상에 없는 조선의 신화
원수님만 따르는 친민의 격류
그것이 곧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의 신화

인민보건발전에 깃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내여나가자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
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인민적
인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져
고있는 속에 의학연구원아래
어디 연구소에서 인민들의 건
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
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이 다
발적으로, 현발적으로 이룩되
었다.

첨단개척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의 학 연구원 아래 여러 연구소에서
90%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한데 이어 현실에서 끈
은 내도록 함으로써 지난 10
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
였다.

평양산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에
방사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수준을
높여야 할수 있다.》

크나큰 민중의 열망을 실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
하셨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에
방사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수준을
높여야 할수 있다.》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지켜

강제고려약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이룩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지난
시 수입에 의존하던 생산공
장의 일부 설비의 부수물들
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
의약품과 액상생약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있는 자
랑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유용,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의학과학연구의 길을 즐기
게 이어온 이들이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평양산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에
방사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수준을
높여야 할수 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유용,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의학과학연구의 길을 즐기
게 이어온 이들이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지켜

강제고려약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이룩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지난
시 수입에 의존하던 생산공
장의 일부 설비의 부수물들
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
의약품과 액상생약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있는 자
랑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유용,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의학과학연구의 길을 즐기
게 이어온 이들이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지켜

강제고려약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이룩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지난
시 수입에 의존하던 생산공
장의 일부 설비의 부수물들
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
의약품과 액상생약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있는 자
랑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유용,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의학과학연구의 길을 즐기
게 이어온 이들이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지켜

강제고려약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이룩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지난
시 수입에 의존하던 생산공
장의 일부 설비의 부수물들
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
의약품과 액상생약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고있는 자
랑한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유용,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의학과학연구의 길을 즐기
게 이어온 이들이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앞선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이 나날에 의료인들은 힘있게 일하고 있다. (본지 기자 김성민)

